

研究論文

20세기 초반의 계몽담론과 한문

김진균*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계몽담론의 타자로서의 한문 | <참고문헌> |
| III. 애증의 대상으로서의 한문 | <국문요약> |
| IV. 계몽담론을 수행하는 한문 | |

I. 머리말

20세기 초 근대계몽기에 이르기 전까지 전통지식인들은 한문(漢文)을 통하여 문명을 영위하였다. 역사 전과정에 걸쳐 축적된 문명의 정수가 한문에 담겨 있다고 보았고, 한문을 읽고 쓰는 행위가 학문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채우고 있었다. 한자·한문을 통해 학문을 추구한 것은 중세 동아시아의 보편적 경향이었다. 중세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한문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면서 강한 문명적 동질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강한 동질의식의 결과, 동문동종(同文同種)이라는 한문사용권역의 문명 공동체적 사유까지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문을 중국문장이라 일컫지 않고 동아시아 중세 보편 문어라고 규정하며 유럽의 중세 문어인 라틴어에 비견하는 것이다. 전통지식인들의 이러한 글쓰기·글읽기 행위의 저변에는 한문이 담고 있는 문명의 절대성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으니, 한문을 읽고 쓰는 권역과 그렇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국문학 전공(bujiwibuji@hanmail.net).

지 못한 권역은 문명과 야만으로 구분된 별개의 세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근대 계몽기에 들어서면 문명으로 믿고 있던 천하는 청산의 대상인 구문명으로 치부되고, 지금껏 야만이라고 폄하하던 세계로부터 추구되어야 할 신문명이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절대적 자부심을 품고 있던 구문명의 입장과 긴박한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신문명의 입장이 자못 팽팽한 대결을 벌이며 긴장을 조성했어야 될 듯싶지만, 그런데 의외로 갈등과 충돌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거나 전통 유산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신문명의 자양분으로 제공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구문명과 신문명의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기엔 근대계몽기가 너무 짧은 순간에 불과하였다.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의 입장에서 한문은 중세, 즉 구문명의 언어였다. 짧은 기간에 구문명이 배제되고 신문명이 추구되었듯이, 구문명의 언어인 한문도 순식간에 주도적 위치를 신문명의 언어에 내어준 셈이다. 결국 구문명의 언어와 신문명의 언어는 대단히 이질적인 단층을 만들어냈다. 그것을 밀어낸 신문명의 도구는 국문체이며, 계몽의 담론이 이 압력작용의 에너지원이었다. 실상 신문명의 근대 담론은 전지구적 승리를 자랑하며 국지전 하나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구문명의 몰락은 일견 당연한 귀결인 듯하지만, 신문명이 철저히 외래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구문명의 유산을 변변하게 정리해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신문명을 위해서라도 더 치열한 대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만들어진 이 이질적 단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단순한 짐작처럼 ‘구문명의 한문/신문명의 국문’으로 대비되는 선명성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교합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근대계몽기 국문체는 당시 조선에 닥친 근대의 모양새처럼 극히 혼란스러운 양상이었다. 이 시기 국문체는 크게 국한문혼용체와 순국문체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한문의 생리에 가까운 국한문혼용체에서부터 한자어만 사용하는 국한문혼용체까지의 스펙트럼이 있고, 순국문체도 언문일치의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방향 속에 놓여 있었다.¹⁾

한문체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몽담론이 싸잡아 수구로 몰았던 것에 비해 변화

1) 이 문제를 다룬 논저로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운동사』(성정사, 1975); 강명관, 「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 논쟁」, 『한국한문학회연구』, 8(1985), 195-252쪽;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창작과비평사, 2002), 392-456쪽;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소명출판, 2005); 임상석, 「근대계몽기 잡지의 국한문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등을 들 수 있다.

의 시도가 아주 없지 않았다. 신문명을 추구하며 계몽담론의 중심에 서 있던 인사들 대부분은 사실 자신들이 타자화하고 배제하려는 구문명의 한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과감히 청산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한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급박하게 근대를 성취하여 전지구적 근대화 과정의 보폭을 따라가야 한다는 계몽담론의 절박한 입장을 한문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문명과 한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바, ‘구문명의 한문/신문명의 국문’이라는 계몽담론의 도식적 인식이 당시 현실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는 것은 아닌 모양새이다. 중국적으로는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언문일치의 순국문체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지만, 대략 구문명의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개명하여 신문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구문명과 신문명이 만들어낸 단층이 복잡한 부정교합을 이루고 있음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제 근대계몽기 계몽담론과 한문 문체의 관계와 실상에 대해 검토해보고, ‘신문명의 한문’이라는 시도에 대해 주목해보려 한다. 신문명과 구문명의 문명적 전환이라는 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근대계몽기에 구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문학도 일정정도 내적 갱신 노력이 없지 않았음을 보이고, 그 동인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결과적으로 한문이 폐지된 현상에 주목하여 계몽담론이 한문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려던 측면을 부각한 기존 인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반증을 제시하여 일정정도 교정된 시각을 확보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문을 타자화하여 배제하려던 계몽담론의 중심영역을 우선 살펴보고, 한문의 타자화가 전일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던 양상으로 시선을 옮겨본 후에, 계몽담론 그 자체를 한문으로 시도하던 양상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논의의 순서를 잡아보려 한다. 근대를 넘어서는 작업이 요구되는 현재, 이 복합단층의 부정교합에서 근대를 반성할 자료를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II. 계몽담론의 타자로서의 한문

이 시기 대개의 계몽운동가들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진화론의 주요 언어를 받아들여 당대의 세계정세를 무한경쟁의 상태로 이해하고, 강자에게 먹히

지 않고 살아남는 적응자가 되기 위해 민족적 각성과 동원을 긴박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²⁾ 말하자면 수구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약자로서의 민족을 적응자로서의 근대 국민으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 이런 개조의 의도가 강력할수록 과거의 습관 일체를 타자화하며 배제하고 강자들의 습관을 사회 속에 내면화하려는 경향이 격심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문명의 언어인 한문을 타자화하려는 논리가 강력하게 대두하였다. 국한문체로 작성된 《대한매일신보》의 「담총」에서는 구문명의 유산 일체가 전혀 무의미한 것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본조 이래로 유자로 칭하는 자가 산같이 쌓여 “집집마다 정자 주자”란 속어가 있을 지경이지만, 능히 뛰어나게 일가를 이룬 자를 구하면 거의 봉황의 털, 기린의 뿔처럼 드물다. 그 소위 아무개 선생 문집, 아무개 공 문집이라 하는 것을 보건대, 왕왕 분량이 수십 수백권도 넘지만 책을 펼쳐서 그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면 “산은 높고 물은 굽다”거나 “바람은 맑고 달은 밝다” 등의 말로 지어낸 시 몇 수가 있을 뿐이며 “정심, 성의, 수신, 체가” 등의 뜻으로 꾸며낸 문장 몇 편이 있을 뿐이다. 열 명의 문집을 보아도 이럴 뿐이고, 백 명의 문집을 보아도 이럴 뿐이니, 이따위 문집은 진시황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자연히 불탄 재가 될 것들이다. 아아!³⁾

「담총」은 그 필자가 신채호일 것으로 짐작된 바 있는데,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 집집마다 정자와 주자가 있는 듯이 도학자가 많지만 스스로 일가를 이룬 이는 거의 없고, 문집들에 남은 것도 음풍농월을 벗어나지 못하며 수구적 도덕이나 나열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굳이 진시황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선의 서적은 저절로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다.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의 시선에서 구문명은

2)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한울아카데미, 1996), 140~183쪽.

3) 「談叢 — 韓國의 書籍」, 《大韓每日申報》, 1909.4.7. “本朝以來로 儒者로 稱호는 者 | 山 又치 積호야 ‘家家程朱’란 俗語가 有호에 至하엿스되 能히 卓然호게 一家를 成立호는 者를 求호면 幾乎 鳳毛麟角 又치 稀호지라. 其 所謂 某先生集이니 某公集이니 호는 것을 見호건디 往往 卷帙이 數十數百에 過호나 此를 一披호야 其中의 所有를 窺호면 山高水麗 風清月白 等 語로 詠出호는 詩 幾首가 有호는 뿐이며, 正心 誠意 修身 齊家 等 意로 演出호는 文 幾篇이 有호는 뿐이라. 十先生의 文集을 閱호야도 如是호며 百先生의 文集을 閱호야도 如是호니 此等 文集은 秦始皇의 出을 不待호고 自然 灰燼에 歸호는 者니 噫라!”

4) 임형택, 앞의 책, 362쪽.

스스로의 현실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이 결핍된 것이었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 구문명 일체에 대해 철저한 배격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구문명 일체의 유산은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본디 개화파로부터 시작되어 근대 계몽운동으로 계승된 것이었다.⁵⁾ 근대 계몽운동기에 신문 잡지들에 무수한 구문명 비판이 게재되는바, 구문명은 철저한 청산 대상이 된 것이다.

청산 대상을 신봉하는 일단의 구학자들도 더불어 청산 대상이 된다. 계몽담론은 구학자들 자체를 대상으로 계몽을 시도하기도 하고, 민중들이 구학자들로부터 폐단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⁶⁾ 구문명의 학자들이 계몽의 대상으로 오르기도 하는 한편, 교육계몽의 대상에서조차 배제된 채 완벽한 구악의 화신으로 치부되기도 한 것이다. 그 두 가지 방향을 다 보여주는 논설이 「부유(腐儒)」라는 제목으로 《대한협회회보》 4호에 실린 김갑순(金甲淳)의 글이다. 김갑순은 부유의 종목을 나누어 구습을 묵수하는 편벽파(偏僻派), 음양서나 뒤지는 미혹파(迷惑派),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유예파(猶豫派), 자포자기의 절망파(絶望派)의 넷으로 설명했다. 이중 특히 편벽파의 특징을 논하는 대목을 보면 신식학교 교육에 대한 방해와 국한문혼용체에 대한 배척이 주목된다.⁷⁾ 교육과 국한문혼용체는 근대 계몽의 주요 도구였던바, 그에 대한 방해 세력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비난하고 든 것이다. 다른 특징들도 구구절절 완고한 유림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고 근대 문물을 배척하는 그들의 태도는 계몽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부유를 지적하는 뜻을 밝혔다.

5) 《독립신문》, 1897.11.31. 「잡보」에는 독립협회 토론회에서 ‘대한이 세계 각국과 비견하여 제일 상등국이 되려면 근일 새 법과 새 학문을 배우지 말고 한당 풍속과 예절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이 주제가 그르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는 기사가 있다. 구체적인 토론 전개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쉽게 짐작해볼 수 있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광린, 「구한말 신학과 구학과의 논쟁」, 『동방학지』, 23·24합집(1980), 1~16쪽 참조.

6) 呂炳鉉, 「新學問의 不可不修」, 《大韓協會會報》, 8호(1908.11), 11~12쪽; 崔炳憲, 「學有新舊 辨其虛實」, 《畿湖興學會月報》, 4호(1908.11), 12~14쪽; 李鍾麟, 「我國學界의 誤解」, 《畿湖興學會月報》, 8호(1909.3), 3~5쪽; 李沂, 「一斧劈破」, 《湖南學報》, 1호(1908.6), 12~18쪽.

7) 金甲淳, 「腐儒」, 《大韓協會會報》, 4호(1908.7), 10~11쪽. “第一 偏僻派나 家族과 他人을 不問하고 靑年子弟가 學校에 赴는 者 | 有는 斯門亂賊이라 目之호며 國漢文混用을 厭忌호야 新書籍 購覽이 絶無호고 其頑僻한 腦髓는 비록 大禹의 神斧라도 劈破키 難호는 者요.”

이 문제를 장황하게 논술한 내 뜻은 다만 썩은 선비 그들을 공격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는 배우지 않은 동포들에게 그 피해가 미칠까 염려되어 막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림 동포의 완고함을 깨우쳐서 각오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생각해보라. 산림동포여. 썩은 선비라는 호칭은 그대들도 평소 싫어하는 바가 아닌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함이 사람의 상정인데, 썩은 선비라는 호칭이 싫거든 썩은 선비의 성질을 버리고 어서 문명의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여 괄목상대로 오하의 아몽을 벗어나, 용감한 전진을 견뎌내는 이탈리아의 카부르를 본받으라. 아아, 우리 산림 학자 동포여!8)

이 부분에서 계몽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배우지 않은 동포들이며 또 하나가 산림이다. 산림이 곧 유림이다. 실컷 유림을 공격해 놓고 나서, 유림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동포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막고 한편으로 유림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였다. 유림들은 그 자체로도 개혁되어야 마땅한 것이니,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죄에 죄를 더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양반사대부로서 백성을 지배하고 지도하던 유림이 계몽담론의 시각에서는 교육 계몽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이며, 서당교육과 한문 등 유림의 존재기반 일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김갑순의 주장을 따라 유림이 오하의 아몽에서 탈각하여 신문명의 새로운 공기를 마시게 된다면 더 이상 유림이 유림일 순 없다. 유림에게 유림이 되지 말라는 주문인 셈이다.

구문명의 계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에 동참하자는 주장들을 담은 논설들은 대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있다. 구문명에 대해 계몽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인사들은 주로 구문명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며 그들이 구사한 국한문체도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소위 진서(眞書)의 문법은 아닌 것이다. 기실 신문명을 수용하고 세계의 변화된 실정을 언급하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몽이 필요하다

8) 金甲淳, 위의 글, 13쪽. “本題를 張皇히 論述한 愚意는 다만 腐儒 其者를 攻擊함에 止함이 안이라 一者난 不學同胞에게 其弊害가 染及할가 念慮防閑코자함이요 二者는 山林同胞의 頑蒙을 警醒하야 覺悟를 催促코자 함이니 試思하라 山林同胞여 腐儒의 呼稱은 君輩도 平素 厭忌하는 바이 아닌가 惡을 惡하고 善을 好함이 人의 常情이니 腐儒의 呼稱을 厭忌하거든 腐儒의 性質을 棄却하고 速히 文明의 新空氣를 吸收하야 刮目相對로 梧下의 阿蒙을 脫免하고 忍耐勇進으로 伊國의 佳富爾를 模範할지이다. 嗟乎라 我山林學者同胞여.”

는 주장을 국한문혼용체로 전개한 것은 계몽의 담론에 적합한 계몽의 문체로서 당연한 귀결인 듯싶지만, 계몽 대상인 구문명 옹호자 소위 ‘수구파’들이 그 글을 적극적으로 독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문명의 인사들을 계몽의 주 대상으로 거론하였다면, 그 계몽 대상이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순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것이다. 왜 구문명 옹호자들을 계몽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놔두고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한 것일까? 국한문혼용체에 담은 내용은 구문명을 계몽 대상으로 지적하는 듯하면서도 실상, 구문명의 일체에 대해 철저히 타자화하고 있다.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계몽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구체적으로 한문 사용자를 지적하여 그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경우까지도 있었다.⁹⁾ 이렇게 된 원인은 구문명 출신 계몽운동가들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급박하게 요구되는 자강의 논리에 강력하게 추인된 결과일 듯하다. 이미 ‘완고’로 규정한 구문명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을 달성하고, 근대의 시민과 국민으로 거듭 나게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때문이 아닐까? 근대계몽기에 활동하던 인물 대부분이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한 것은 국한문혼용체의 공동체로 구성되어가고 있던 근대 국민을 독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몽담론의 생산자들이 바로 유럽에서부터 탈각하여 근대 국민이 된 사람들이다.

계몽담론이 구문명을 배격하고 수구유림을 배제하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한문도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것은 순국문지향이나 국한문혼용지향 양측에서 공히 동의하는 대목이다. 유길준이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문을 탈피하여 국문으로 저술한다는 뜻을 밝히고 그 실현을 도모한 이래, 순국문 《독립신문》(1896)과 국한문혼용 《황성신문》(1898)의 창간을 거치면서, 근대계몽기 한문글쓰기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청산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문폐지론에 관한 내용은 이미 충분히 소개되어 있다.¹⁰⁾ 다른 실용적 논리를 차치하고 한문이 갖는 구문명의 대표성을 언급하는 다음 글이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9) 李鍾一, 「論國文」, 《大韓協會會報》, 2호(1908.5), 13쪽. “使我韓二千萬衆으로 除其通曉漢文者外에 勿論男女老幼하고 一切教育이되 洞各設校하야.”

10)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강명관, 앞의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슬프다. 대한제국 몇 백년 동안 한문학자는 조선(朝鮮) 두 글자를 전부 배척하고 오직 한(漢)을 흠모하고 오직 한을 숭앙하며, 스승삼고 존송하며 의뢰하여, 그것을 존경하여 대국이라 하고 우리를 천시하여 소국이라 하고…크게 외치기를 한국문(漢國文)이라 하여 국문의 역신이 되며 한문의 충노가 되려하니…(여규형 당신에게) 청년시대에 글자나 파먹던 재주를 품고 재사의 명예가 남도에 떠들썩하게 한 것도 한문이고, 하루 아침에 높이 올라 여씨 가문에 과거 합격의 경사를 만들어낸 것도 한문이라…그대는 한문에서 태어나서 한문에서 성장한 자이니 그대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한문이고 그대를 벌주는 것도 오직 한문이라 할 만하다.¹¹⁾

이 글은 여규형(呂圭亨)이 한문과 국문의 관계를 논하면서 유림(儒林)의 도(道)를 지키기 위해 한문은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글을 발표하자,¹²⁾ 황희성(黃羲性)이 반박의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다. 인용한 부분을 보면 우선 한문학자가 조선은 잇고 중화만을 떠받드는 중화주의를 지적하며 그들을 한문의 충실한 노예라 하였다. 왜 한문을 그렇게 떠받드는가 하면 여규형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문명에서 유림의 삶은 모두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현실을 생각할 때 구문명으로부터 아무 유익한 점을 발견할 수 없듯이, 구문명 수구파인 유림으로부터도 아무런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인 한문으로부터도 아무 유익을 찾을 수 없다는 논리의 압축이다. 한문을 폐지하지 말자는 여규형의 논문은 친일유림의 대표잡지 《대동학회월보(大東學會月報)》에 수록되었다. 물론 한문으로 글을 썼다. 이렇듯 한문수호론이 수구와 친일의 논리를 결합한 인사인 여규형에 의해 주장되었다. 계몽담론의 중심에서 한문은 이제 구악의 화신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되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구문명이 살던 한문이라는 집은 이제 계몽인사들에게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낡은

11) 黃羲性, 「與呂荷亭先生足下書」, 《大韓每日申報》, 1908.3.25. “惜哉 韓國 幾百年來 漢文學者는 朝鮮 二字는 背後에 全付하고 惟漢을 是慕호며 惟漢을 是仰호며 是師是尊호며 是依是賴호야 彼를 敬호야 曰大國이라 호며 己를 卑호야 曰小國이라 호고…大呼曰 漢國文이라 호야 國文의 逆臣이 되며 漢文의 忠奴가 되라호니…青年時代에 虜虫長技를 抱호야 才士의 名譽가 南村에 喧藉케 호 者도 漢文이오 一朝天地에 風雲을 吹嘘호야 呂氏家中에 一科慶을 又出케 호 者도 漢文이오…先生은 可謂 生於漢文 長於漢文 知我者 其惟漢文 罪我者 其惟漢文이라 할 만호니.”

12) 呂圭亨, 「論漢文國文」, 《大東學會月報》, 1호(1908.2), 52~53쪽.

집으로서 재건축 대상으로까지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한문의 지속을 추구하던 한문지식인들이 모두 수구친일 인사라고 할 수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전통 유림들 중에는 한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한문을 통해 저항의 논리를 편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다만 사회진화론의 강력한 영향 속에 놓여 있던 대부분의 계몽지식인들에게 구문명은 청산의 대상임이 의심할 바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런 의식 속에 구문명의 언어는 바로 수구적 구악으로 지목하여 배제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수구적 구악의 대표격으로 여규형이 펼친 것과 같은 논리가 눈앞에 포착된 것이다. 그러니까 긴박한 근대화의 요구에 부응하며 형성된 계몽담론에서는 여규형을 우선 겨누고 그 뒤편에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던 한문지식인들을 싸잡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타자화하는 구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한문은 당시 대부분의 계몽지식인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단순히 구악의 화신으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며, 본고가 앞으로 재현해 설명하려는 상황도 이 시기 한문이 갖고 있던 다층적 기능과 의미이다.

III. 애증의 대상으로서의 한문

근대계몽기의 계몽담론이 그 청산대상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 바로 구문명의 한문이었다. 구문명에 대해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여규형과 같은 인물은 매국적 태도까지 겸비하여 공분을 야기하였으니 계몽담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면서도 적절한 공격 목표였다.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불특정다수 유림도 근대화의 타자로 인식되어 배제의 논리를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배제의 대상이 되는 유림이 사용하는 구문명의 언어인 한문에 대해서도 폐지론이 펼쳐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구문명의 한문을 폐지하자는 논리를 펴는 이 시기 계몽담론의 생산자들은 대략 구문명의 한문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었다. 구문명의 한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한문은 문자생활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자신의 고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근대문명의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 자신의 낙후된 고향에 대해 갖는 생각이 대단히 착잡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계몽담론이면서도 한문에 대해 적잖은 애정을 보이는 글이 이기(李沂, 1848~1909)에 의해 작성된 바 있다.

완고함이 오늘날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과연 크다. 그러나 그 사정을 살피지 않고 다만 개선하기만을 요구한다면 아마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아끼고 사랑함에서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아끼고 사랑함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한다면 습관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경험한 바로서 말해보고자 한다. 나는 어려서 과거공부를 하여 제목을 대하고 생각을 엮다가 좋은 구절 하나를 얻으면 문득 스스로 기뻐하였고, 남들도 전하고 외우며 재능있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었다. 매일 저녁 술 기운이 돌 때에 부채를 쥐고 상을 치면서 낭랑하게 한 소리를 읊으면 죽히 사람을 즐겁게 하였다. 천하의 즐거운 일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스스로 여겼다.¹³⁾

이 글의 전반이 드러내고 있는 주제는 국가적으로 폐해만을 안기고 있는 완고함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완고함의 내포는 구문명 지식에 대한 수구적 태도인 바, 바로 구문명 지식을 배격하고 신문명의 학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태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완고함을 배척하자는 이 글에서 완고함의 연원을 밝히며, 필자인 이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대목에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어떤 대상에 대한 완고한 태도는 바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는 그것에 대한 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완고하게 집착하는 대상은 구문명의 한문인데, 어려서부터 과거공부를 하며 습관적으로 한문을 대하게 되고 습관적인 학습의 결과, 그것의 쾌감을 알게 되고 차츰차츰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상 생활의 일부로서 한문이 자리잡게 되는 것을 넘어 생활의 전부로까지 받아들인 것이다.

13) 李沂, 「習慣生愛戀愛戀生頑固」, 《大韓自強會月報》, 제8호(1907.2), 10쪽. “頑固之爲害於今日國家者 | 果大矣라. 然不究其情原호고 徒責其改善인디 恐亦不可得也로다. 若問頑固 | 生於何處오 호면 則曰愛戀也오 愛戀이 生於何處오 호면 則曰習慣也라 請以吾嘗經歷者로 言之호리라. 吾 | 少時에 學爲學業호야 對題構思호야 得一佳句호면 輒自喜悅호고 人亦傳誦호야 號稱才子라. 每日夕酒酣에 把扇打牀호고 朗咏一聲호면 亦足快人이라. 自以爲天下樂事 | 莫過於此也러니.”

스물여덟살이 되어서 드디어 과거공부를 버리고 다시 하지 않았으나, 간혹 시골 서당을 지나다가 과거공부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곧 애호의 정이 도리어 다시 발동하였다. 나처럼 일찍이 그것의 잘못을 안 사람으로도 오히려 이러한 데, 하물며 그것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¹⁴⁾

이기 자신은 조금씩 과거 공부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근대적 신학문의 자세를 배워가서 결국 과거공부를 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공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애호의 정이 다시 생겨난다고 하였다. 28세부터 과거공부에서 탈피했다고 했으니 1876년 무렵이고,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과거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니, 과거공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애호의 감정이 생긴 것은 그 사이의 일일 것이다. 그들 중에는 갑오개혁 이후에도 과거공부를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계속하였다. 그것은 “수십년 동안 시간을 들여 쌓은 공부인지라 하루 아침에 쓸데없이 되었어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차마 깨끗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¹⁵⁾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오백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것이라 지금 폐지되더라도 결국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기는 이 대목에서 착잡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본인은 신학문의 자세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유인하여 개선해보겠다는 글 초반의 적극적 태도는 글 중반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애매하게 되어버리고, 완고의 뿌리인 습관과 애정을 타파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헤매다가, 결국 결론 부분에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학문을 학습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성급하게 마감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기의 이 글은 국한문혼용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원문을 읽어보면 한문의 문리를 전혀 파괴하지 않고 고스란히 살린 채 “하고, 하면, 이라” 등 한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토씨만을 달아놓은 문장이다. 그래서 “하고, 하면, 이라” 등의 토씨를 제외하고 독해하면 한문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14) 李沂, 위의 글, 10~11쪽. “至二十八歲^{호야} 遂棄學業不復作이나 然時或過村塾^{이라}가 見做學業者^호면 則愛好之情이 還復發動^{호니} 夫以吾之早知其非者로도 猶尙如此은 況不知其非者乎아.”

15) 위의 글, 11쪽. “蓋數十年積費工夫가 一朝而無所用處나 然愛戀이 尙存^{호야} 不忍決捨^{호니}.”

있다. 이기 자신은 과거의 공부하던 습관을 버렸다고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한문에서 나오는 문장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셈이다. 게다가 이기는 구문명의 언어관습에 따른 전거를 활용하여 구문명을 공박하는 계몽담론을 만들어낸 바도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나라를 멸망시키는 신법이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가 이미 신법을 사용한다면 나라를 회복하는 자도 마땅히 신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 이치가 매우 명백하거늘, 오히려 수구를 자처하고 새로움을 도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서』에서 일컬은바, “옛날에 물든 나쁜 풍속을 모두 함께 새롭게 한다”는 것과, 『모시』에서 일컬은바, “주나라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롭다”는 것과 『논어』에서 일컬은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것과 『대학』에서 일컬은바,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는 뜻에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⁶⁾

여기서는 『상서』, 『모시』와 『논어』, 『대학』 등에서 출현하는 “새로움[新]”이라는 뜻을 이용하여 신학문 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인용한 문장들은 순서대로 각각 『서경』, 「하서(夏書)」 ‘윤정(胤征)’편,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편, 『논어』, 「위정(爲政)」편과 『대학』, 전문(傳文)에 실려 있는 것으로, 출전이 모두 한문기본고전이며 대개 한문초학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글도 원문에서 토씨로 사용한 국문을 제거하면 고스란히 한문의 문맥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 구문명의 교육으로 한문을 익힌 관습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한문을 통해 익혔던 의미있는 경구(警句)들의 미학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순한문의 난해함을 지적하는 한홍교의 경우에는 한문이 실지 사용에 편의가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¹⁷⁾ 이 시기 계몽인사들의 학습과정이 대개 이기와 유사하였을 듯한데, 윤희정

16) 李沂, 「一斧劈破, 《湖南學報》, 1호(1908.6), 14쪽. “是謂滅國新法也니 滅國者ㅣ 旣用新法이면 則復國者도 亦當用新法者ㅣ 其理甚明矣어늘 而猶將自居守舊호고 不念圖新호니 則其於商書所稱舊染汚俗咸與惟新과 毛詩所稱周雖舊邦斯命維新과 論語所稱溫故而知新과 大學所稱日新又日新之義에 不相繆戾耶아.”

17) 韓興教, 「國文과 漢文의 關係, 《大韓留學生會學報》, 1호(1907.3), 28쪽. “黃帝時에 蒼頡이 비로소 圖畫의 文字를 造成호였스되…漢 以後로 楷行草三體가 變遷되야 吾人의 只今實地應用上에 一

(尹孝定, 1858~1939)의 문체도 이기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친구가 “구미인(歐美人)은 세상의 쾌락에 대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니 미산 심군(彌山沈君)이 구레나룻을 끌고 머리를 흔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 구미인은 진정한 쾌락이 없다.” 여럿이서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물으니 미산이 말했다. “만약 구미인 생활을 말한다면 보석 같은 건물과 집이 구름을 제치고 하늘을 찌르니 거처의 쾌락이라면 있는 것이고, 물과 땅의 진수성찬이 조화를 이루어 적절하게 얻을 수 있으니 먹고 마시는 쾌락이라면 있는 것이고, 모직물이 잘 만들어져 따뜻함이 몸에 맞으니 의복의 쾌락이라면 있는 것이고, 나라에 독립된 문명의 쾌락이 있고, 백성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쾌락이 있으니 이런 쾌락이라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오직 『좌전』 문자의 진정한 쾌락이라면 없는 것이다.” 이에 당에 가득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심군에게 ‘문자쾌락공’의 호를 붙여주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군의 이 말은 도리어 우리나라 인사가 세계의 큰 쾌락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한문문자의 작은 쾌락에 얽매인 것을 조롱하여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¹⁸⁾

이 글도 원문은 한문 문장 구성원리를 크게 파괴하지 않은 채 국문으로 토씨만 달아놓은 정도이다. 내용은 어느날 윤희정이 동료들과 시 짓는 모임을 하고 있다가 발생한 일에 대한 회억이다. 미산 심군이 쾌락을 주제로 하여 당시의 유럽 미국과 조선을 극적으로 비교하여 조선의 미개한 측면을 대단히 부각시키면서도, 진정한(?) 쾌락은 조선에만 있다는 말을 앞뒤로 배치하는 방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진정한 쾌락을 『춘추좌씨전(좌전)』의 문자로 대표하여 표현하고 있는바,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좌전』으로 대표되는 한문의 생리에 구구하게 얽매어 신문명의 장점을

大便宜를 與히니 그 由來를 沿革을 稽考하면 決코 一朝一夕에 容易造된 것은 아니니.”

- 18) 尹孝定, 「文字快樂」, 《大韓自強會月報》, 6호(1906.12), 60쪽. “有某友曰歐米之人은 其於人世快樂에 可謂無所不有者乎 且 有彌山沈君이 掀髯掉頭莞爾而笑曰惡라 歐米人은 無眞快樂이니라 衆曰何謂也오 彌山曰若論歐米人生活이면 瓊樓玉宇가 拂雲衝霄히니 居處之樂則有之하고 水陸珍羞가 調和得宜히니 飲啄之樂則有之하고 絨氈精製가 暖溫이 適體히니 衣服之樂則有之하고 國有獨立文明之樂하고 民有自由活動之樂히니 是樂也則有호되 唯左傳文字之眞快樂則無之니라 於是乎滿堂一哄히야 緯號沈君曰文字快樂公이라히니 竊意沈君此語는 反嘲我國人士之不知世界大快樂而區區於文字小快樂者히야 以滑稽道之者歟 且저.”

외면하고 있는 유럽들에 대한 비난으로 느껴진다. 미산 심군의 발언 취지가 유럽에 대한 조롱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윤희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목에서 윤희정은 그 조롱의 수사학에 주목한다. “구미인은 진정한 쾌락이 없다”라고 집회구성원의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대뜸 먼저 하여 이 구성원들에게 의문과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수법을 썼고, 이후에 구미인의 온갖 장점들을 나열하고서는, 다만 『좌전』 하나만을 들어 문자의 쾌락이 없으니 진정한 쾌락이 없다는 결론을 맺음으로써, 결국 진정한 쾌락이라는 게 반어적 조롱이었음을 드러내는 수사학이다. 윤희정은 이때 사용한 미산 심군의 수사학과 『좌전』 어느 대목의 수사학이 유사함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좌전』의 해당 대목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번 세번 읽도록 만드는 재미있는 문장이며, 미산 심군의 발언은 바로 『좌전』의 문장 수법을 배운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수사학을 사용하여 흥미를 만들어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한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간다.

요즘 문자를 논하는 자들이 다만 한문이 깨닫기 어렵다는 폐해만을 말하고, 한문의 취미로 인하여 점차 책을 보는 버릇을 얻게 되고, 책을 보는 버릇으로 인하여 점차 고대의 예악문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 미산 심군이 진정한 쾌락을 깨뜨린 것이 되지 않음이 없다.¹⁹⁾

한문이 물론 깨닫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문을 통해 취미를 느끼고 독서량을 늘려 고전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이점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한문의 취미라는 대목은 앞서 본 이기의 경험담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기는 한문 취미에서 애정을 느끼지만 근대화의 장애이기에 그 습관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반면에 여기서 윤희정은 한문 취미에서 지식 확장이라는 장점을 부각하여 한문 취미를 완전히 폐기할 것은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한문의 미학 뿐만 아니라 한문의 학문적 실용성도 인정한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한문을 배격하는 논리들을 공박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배제해야 할 구문명의 습관으로부터 한문

19) 尹孝定, 위의 글, 61쪽. “今之論文字者 | 只說漢文難曉之弊하고 全不知因漢文趣味하야 漸得其看書癖焉하며 因其看書癖하야 漸解古代之禮樂文明하니 無非爲沈瀾山破碎眞快樂者也오.”

을 분리해내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계몽의 영역에서 한문이 배제되지 않고 다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IV. 계몽담론을 수행하는 한문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계몽담론의 경향이 한문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논리였음을 보이고 일부 계몽운동가들은 한문에 대해 애정과 증오를 동시에 드러내며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을 보였던 정황을 정리해본 것이다. 그런데 계몽담론이면서 한문을 타자화하기는 커녕 한문 그 자체를 활용하여 계몽담론을 수행한 경향이 있었다. 그 경향은 계몽담론의 중심영역이라 할 서울에서도 있었고, 계몽담론이 관철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영남에서도 보인다. 여기서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한문을 타자화하던 계몽담론은 실상 전통 한문지식인들을 근대국민에서 배제하려는 지향을 보였던 것인 반면에, 한문을 통해 계몽담론을 수행한 경우는 전통 한문지식인을 적극적으로 계몽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계몽의 동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1. 계몽담론의 중심에서

계몽담론의 중심에서 구문명의 유산 일체를 노예의 학문으로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본 「담총」 ‘한국의 서적’과 이 글은 마치 한 필자가 쓴 것처럼 내용과 주장이 닮아있다. 구문명에 대한 혐오는 계몽담론의 일반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아! 우리나라 서적계에 어찌 서적이라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열을 가지고 말한다면 다섯은 조정의 은혜를 읊은 시이고, 셋은 정자와 주자를 찬미한 노래이며, 둘은 한유·소식·이백·두보 무리가 뱉어놓은 찌꺼기인데, 그나마 만분의 일도 비슷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를 가지고 개략 그것을 말한다면 노예의 학이다.²⁰⁾

20) 卞榮晚, 「序」, 申采浩, 『乙支文德』(廣學書舖, 1908), 1쪽. “吁! 我國書籍界, 烏有所謂書籍者哉. 就

변영만이 쓴 글인데, 신채호의 역사전기 『을지문덕』에 붙이는 서문이다. 이 글은 전통 한문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보았다. 왕실 송덕에 관련된 관각문(館閣文)들, 주자학에 관련된 철리서(哲理書)들, 중국문학의 아류인 문학작품(文學作品)들로 나누어 보았는데, 각기 관료로서 학자로서 문인으로서 남기는 글들이다. 양반사대부가 남기는 글의 전체라고 할 분야인데 그 전체를 싸잡아서 노예의 학이라고 하였다. 계몽의 급류 속에서도 다소 과격한 언사라고 아니할 수 없지만, 적어도 청산해야 할 과제로 구문명의 광범위한 유산을 지목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속박하고 몰아붙여 정신없이 노예학의 구역 안으로 내달리면서, 국가의 원리나 민족의 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마치 나를 더럽힐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²¹⁾

이렇듯 구문명을 철저히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 글은 내용면에서 계몽담론의 전개와 동계를 이루고 있는데, 문체면에서는 묘하게도 구문명의 도구인 순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신문명의 계몽적 언사를 구문명을 향하여 구문명의 언어로 편 셈이다. 이 서문이 붙은 역사전기는 국한문체 『을지문덕』과 순국문체 『을지문덕전』이 동시에 간행되었는데, 변영만의 서문은 국한문체 『을지문덕』에만 게재되었다. 순국문체는 국한문체에서 소외된 부녀층 및 민중을 겨냥한 것이었다.²²⁾ 그러니까 국한문체 『을지문덕』은 독서에서 소외되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고, 거기에 붙이는 변영만의 서문은 한문 가독층을 겨냥하여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이 무렵 국한문체의 독자가 한문 가독층과 일치하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 학술지들에서도 국한문체와 순한문체가 뒤섞여 게재되고 있음으로 보아 한문 그 자체가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었고, 변영만처럼 한문으로 계몽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변영만(卞榮晩, 1881~1954)은 이 근대계몽기에 제국주의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²³⁾ 서양 제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간파하는 『20세기의 대참극 제국주의』(1908)를 역술하였으며, 『세계삼괴물』(1908)

十分而言, 五分朝家之誦德詩也, 三分程朱之讚美歌也, 二分韓蘇李杜輩之唾之餘而猶不能彷彿其萬一者也. 就全體而概言之, 奴隸學也.”

21) 卞榮晩, 위의 글, 1~2쪽. “將一國之書籍, 束縛之, 馳驟之, 爛漫奔走於奴隸學之域之中, 而於國家之原理·民族之大勢, 無或及之, 若將浼焉, 烏用此書籍爲也, 烏用此書籍爲也.”

22) 임형택, 앞의 책, 412쪽.

23) 최기영, 『한말 지식인의 반제국주의론』,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일조각, 2003), 56~91쪽.

같은 글을 통해 자본주의와 군국주의, 제국주의와 같은 괴물들이 20세기 약소민족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자강(自強)의 시급함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근대 계몽담론 중심인물의 한 사람이었다.²⁴⁾ 이 논저들은 주로 국한문혼용체를 구사했지만 앞의 인용문처럼 순한문으로 작성한 글들도 적지 않다. 또 앞서 국한문혼용체에서 언급된 유길준이 『이십세기지대참극 제국주의(二十世紀之大慘劇 帝國主義)』에 서문을 붙이는데, 순한문체이다. 근대계몽기의 한복판에서도 유길준이나 변영만의 경우 국한문혼용체와 한문체를 넘나들면서, 비판의 대상을 구문명으로 한정하고 한문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은 듯하다.

2. 한문지식인을 직접 계몽하는 한문

계몽담론을 시종일관 한문으로 수행한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은 정재(定齋)학과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의 문생이었다. 안동지역의 강한 위정척사 논리의 적잖은 영향 하에 을미년(1895)과 을사년(1905) 의병투쟁에도 참여하였다. 1907년 유인식·김동삼과 함께 협동학교(協東學校)를 설립하였고, 1909년에는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을 벌였다.²⁵⁾ 의병투쟁 실패 후 “드디어 동서양의 신간서적의 구입해 보고 세계의 대세 및 적국의 병력을 소수의 오합지졸로 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 그제서야 방향을 바꾸어 교육과 사회의 일에 유의하였다”고 한다.²⁶⁾ 그가 구입한 동서양의 신간서적 중엔 양계초(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이 포함되어 있었던 듯하다.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에서 양계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의 역사전기류 작품들의 국내 번안을 비롯하여 논설과 담론에도 적지

24) 김진균, 「변영만의 비판적 근대정신과 문예추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18~25쪽.

25) 이상룡의 생애에 관해서는 윤병석, 「해제」, 이상룡, 『石洲遺稿(제1집)』, 1~11쪽 참조. 이상룡의 계몽운동과 서양 철학 연구에 대해서는 안건호, 「1910년 전후 이상룡의 활동과 사회진화론」, 『역사와현실』, 29(1998), 250~274쪽; 신귀현,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양철학 수용과 그의 개혁사상」, 『철학』, 63(2000), 5~33쪽; 박원재,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 『오늘의 동양사상』, 11(2004), 381~403쪽; 윤순갑·김명하, 「석주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국가주의」, 『대한정치학회보』, 12집 2호(2004), 313~470쪽 등 참조.

26) 「先府君遺事」, 이상룡, 『石洲遺稿(後集)』, 386쪽. “遂購覽東西新印書籍, 確知世界大勢及敵國兵力, 非少數烏合之卒, 所可抗埒, 時轉換方向, 留意於教育合群之事.”

않은 영향을 미쳤다.²⁷⁾ 이 양계초 담론의 자장에 이상룡이 들어 있는 것도 옹호무괴인데, 이상룡이 대한협회 회관에 걸어두도록 일종의 지침을 작성하면서 재료로서 활용한 것은 대개 양계초의 문집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 점으로 비추어 짐작해볼 수 있다.²⁸⁾ 그는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정리하여 「합군집설(合群輯說)」, 「격치집설(格致輯說)」, 「진화집설(進化輯說)」 등을 저술하였다. 각기 사회론, 서양철학, 진화론 등에 대한 소개이다.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개의 차원이지만, 이 개념이 갖는 근대 계몽 담론으로서의 의의에 공명하면서 계몽의 언사를 주석으로 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을 이야기한 뒤에 덧붙이는 주석은 사회집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회진화론의 흔적이 분명한데,²⁹⁾ 키드나 스펜서 류의 이런 사회진화론적 사유는 근대계몽기의 중심 담론으로 이미 확인되어 있다.³⁰⁾ 나아가 동양의 호고주의(好古主義)에 대해 서양의 발전주의(發展主義)를 대비시켜 서양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³¹⁾ 이렇게 근대계몽의 중심 담론을 한문으로 옮겨 적음으로 해서, 유럽들이 직접 읽고 계몽이 되도록 시도한 것이다. 좀더 계몽적인 언사를 보자.

오늘은 경쟁시대이다. 국세는 위태롭고 여론은 흩어졌다. 비록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잘 다스려지기를 힘써 도모하여, 소꼬리처럼 뒤처지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는 늙고 백성은 병들어, 백가지 노력이 모두 썩먹는데에라. 만약 이 때에 이르러 깨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장차 책임을 회피한 귀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협회를 세운 까닭이다.³²⁾

27)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 업적으로 섭건곤,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 고려대 박사학위논문(1979); 우림걸, 『한국 개화기 문학과 양계초』(박이정, 2002)가 있다.

28) 李相龍, 「書揭大韓協會會館(1909)」, 『石洲遺稿(제1집)』, 202쪽. “取用材料, 多本於支那人梁啓超集中, 蓋欲實施而收其成效, 非敢用竊狐裘手法也. 讀者恕之.”

29) 李相龍, 「進化輯說」, 『石洲遺稿』, 201쪽. “故進化的運動, 不可不犧牲個人, 以利社會, 犧牲現在以利將來. 若僅曰 現在而已, 則進化之說 無一毫之意味, 無一毫之價值, 惟以供未來之用然後 所謂現在, 方有意味, 方有價值. 凡一體社會思想 國家道德思想, 皆歸結於是.”

30) 박노자, 『우승열폐의 신화』(한겨레신문사, 2005), 356~404쪽.

31) 김석중, 「한말 영남 유학자들의 신학 수용 자세」,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325쪽.

32) 李相龍, 「書揭大韓協會會館(1909)」, 202쪽. “今日, 競爭時代也. 國勢之岌岌, 民情之渙散, 雖不至此,

국가 위난의 사태에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언사인 듯도 보이지만, 들머리에 대뜸 나오는 경쟁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의 경쟁은 적자생존 우생열패와 맞물려 있는 사회진화론적 용어이다. 이런 경쟁의 시대에 개명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차원에서 단결하여 경쟁을 헤쳐나가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세계대한협회회관」은 대한협회 안동지부를 설립하고 그 회관으로 사용된 장소에 걸도록 적은 일종의 취지서이다. 구체적 실행지침으로 민덕(民德) 민지(民智) 민기(民氣)를 양성할 것 등을 정해 제시하였다. 학문적으로 신학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도 전지구적 약육강식의 시대에 강자들에게 먹히는 고기가 되지 말자는 지극히 계몽적 차원이었던 것이다.

이상룡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동산(東山) 유인식(柳寅植, 1865~1928)은 정재학과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에게 배웠고, 정재학과의 위정척사논리를 실천하는 1895년 전기의병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런 그가 1903년 서울에 왔다가 신채호를 만났는데, 영남의 학술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서양 학문은 연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며칠 동안 논쟁하다가 결국 세계정세에 관한 책들을 접하고서 신채호의 의견에 크게 감복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³³⁾ 이후 그는 이상룡과 행동을 같이하며 대한협회 활동도 하였고 협동학교의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이상룡 등이 중국으로 망명할 때 함께 가려 하였으나 왜경에 체포되는 바람에 포기하였다.³⁴⁾ 계몽 담론과 관련하여서는 「학범(學範)」과 「태식록(太息錄)」이 주목된다. 1920년에 작성된 「학범」에서도 양계초의 흔적이 발견되는바, 스스로 양계초의 저술을 참고해서 학문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³⁵⁾ 「태식록」은 정확한 저술 시

猶當勸精圖治，恥居牛後，而況國老民病，百務叢脞，若及此時，不醒沈夢。吾輩將爲負逋之鬼。此吾協會之所由設也。”

33) 柳寅植, 「上金拓菴先生(1908)」, 『東山文稿庫』 卷一, 23쪽. 신채호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책은 내용으로 보아 梁啓超의 『飲冰室集』이었던 듯하다.

34) 유인식의 삶에 대해서는 김희곤, 「동산 유인식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1997), 45~65쪽에 정리되어 있다. 그의 계몽운동을 다룬 연구로 정순목, 「영남유림에 있어서 교육개화운동: 동산유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1981), 5~20쪽, 박원재, 「동산 유인식의 계몽운동과 유교개혁론」, 『동양철학』, 26(2006), 29~54쪽 등이 있고, 그의 한시를 다룬 김시업, 「한문학에 있어서의 민족적 자아」, 『한국한문학연구』, 19(1996), 113~122쪽, 김시업, 「근대전환기 한문학의 세계인식과 민족적 자아」, 『대동문화연구』, 38(2001), 161~180쪽이 있다.

35) 柳寅植, 「學範」, 『東山文稿』 권2, 19쪽. “遂取梁任公 時務 學堂 學記 又雜採我國青年所當勉者.”

기를 알 수는 없으나 정부를 비난하는 대목에서 조선왕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1910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이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계몽 담론의 강한 자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태식록」은 ‘정부의 부패를 논함[論政府之腐敗]’ ‘유림의 부패를 논함[論儒林之腐敗]’ ‘오늘 민족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림에게 있다[今日民族之責 全載於儒林]’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 제목만 보아도 내용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는데, 서론에서부터 20세기가 되어 경쟁의 풍조가 동서에서 충돌하는데도 여전히 완고하게 수구만 하고 있으니 장차 이 물경천택(物競天擇)의 시대에 자립할 수 있겠느냐는 강한 계몽의식을 보이고 있다.³⁶⁾

또 그의 스승 김도화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보자. 이 편지는 1908년에 작성된 것이다. 우선 영남에서 선비들이 추구하는 구학문을 셋으로 나누어 비판하였는데, 훈장이 서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법과 시문에 불과하고, 문장가가 유림들에게 인정받는 바는 음풍농월에 불과하고, 산림속유가 하는 철학도 결국 국가를 위해 무슨 쓰임이 있느냐고 물었다. 구학문 일체의 무용함을 철저히 지적한 것이다.³⁷⁾ 그리고 이어서 신학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한다.

(이런 학문으로는) 비록 적국이 없다 해도 하루를 부지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하물며 오늘은 서양 사조가 한번 밀어닥쳐 분위기가 문득 변했습니다.…지금
은 곧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대변화의 국면입니다.³⁸⁾

아무래도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라는 근대계몽기 중심 담론의 용어에 주목하게 된다. 이상룡과 마찬가지로 유림을 직접 계몽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이 글은 놀랍게도 스승을 계몽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어서 자신이 머리를 깎고 신문명 계몽에 앞장서게된 소회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사대부는 독서와 정치를 병행하는 지배계

36) 柳寅植, 「太息錄」, 『東山文稿』 권2, 2쪽. “忽此二十世紀, 競爭風潮, 衝突東西…頑固之是守, 飲啄之是營, 其將自立於物競天擇之時乎?”

37) 柳寅植, 「上金拓菴先生(1908)」, 『東山文稿』 권1, 5쪽. “言之村學究所教詔於里塾者, 不過表策詩賦併儷之文, 詞章家所聘藝於儒林者, 只是風化雪月綺麗之句, 至若山林宿儒之主教於臯比, 則雖非淺見諛識之所敢妄論, 然粉筆箋註之文 穿鑿理氣之說 其果切近身心家國而有需用之實者乎?”

38) 柳寅植, 위의 글, 6쪽. “雖無敵國外患, 固不可一日維持, 況今 西潮一迫 風氣忽辨, …即弱肉強食優勝劣敗之大變局也.”

급이자 지도계급이다. 정치 현실에서 소외되어가는 처지에서 학문을 통한 정통성 확보에 더욱 경주한 영남권에서 이런 지도계급으로서 양반의 자기규정은 강할 수밖에 없다. 지도계급으로 자부하는 스승 김도화가 제자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다 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김도화는 이미 유인식을 제자의 열에서 삭제했다.³⁹⁾ 사실 이 글은 김도화의 의절에 대해 만회해보고자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려 작성한 편지였다. 이 편지에 대해 김도화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동료들에게도 편지를 보낸다. 역시 묵묵부답이다.⁴⁰⁾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도 의절당한다. 최악의 고립을 당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닌데 생각보다 반발이 심각하긴 하다. 이상룡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동료 유림들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대문을 닫고 비방하며 조롱했다.⁴¹⁾ 이상룡의 경우 스승 김홍락이 다행히도 1899년 서거하였기에, 유인식처럼 스승으로부터 파문 당하는 사건은 겪지 않았다.

지금 영남 학맥에 속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지도계급으로 자부하고 있는 처지에서, 유인식과 이상룡은 그들을 계몽교육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당연히 응징이 없을 수 없는 사태이다. 두 사람이 향리에서 받았을 곤경은 익히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교육계몽의 의지를 계속 실천해나갔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유인식과 이상룡, 김동삼 등이 중심이 되어 신식학교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안동의 협동학교(協東學校)였다. 이 협동학교의 교육 제도를 보건대, 대개 신문명과 한문이 적절히 배합된 것이었던 듯하다.⁴²⁾ 1910년에 기어이 이 지역 義兵 수십명이 들이닥쳐 교사 세 명을 살해하는 참상이 빚어졌던 것이다.⁴³⁾

39) 부록 「略歷」, 『東山文稿』 권2, 40쪽. “甚至於不得於家庭 見絕於師門.”

40) 위의 글, “乃作長書於平日依仰之師友, 披肝瀝血, 痛切譏刺, 備陳時措之宜, 凡累萬言, 不一回音.”

41) 「先府君遺事」, 李相龍, 『石洲遺稿(後集)』, 386쪽. “先時, 京城大韓協會, 有傳函勸起, 至是, 裁答以示同情, 與鄉間人士, 倡起支會. 時士友多膠守舊, 見閉戶誹笑, 府君少不顧忌, 毅然自任有登車攬轡之概.”

42) 정순목, 앞의 논문, 18쪽.

43) 김희곤, 앞의 논문, 51쪽.

V.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계몽기의 계몽담론과 한문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예를 찾아 고찰해 보았다. 20세기 초반의 계몽지식인들은 당시 조선에 닥친 위기 상황을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만이 관철되는 세계로 이해하고, 강자와 같은 수준의 근대화를 절박하게 이룩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을 담은 계몽담론을 생산하였다. 대부분의 계몽담론은 긴박한 근대화의 과제 속에서 중세적 질서를 담고 있는 한문이 마땅히 청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바, 구문명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한문에 대한 지속적인 타자화를 시도한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한국의 서적」이나 김갑순의 「부유(腐儒)」, 황희성의 「여여하정선생족하서(與呂荷亭先生足下書)」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계몽인사들은 대개 구문명의 한문을 제1의 문어로서 익히고 전통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토대가 실상은 그들이 타자화하여 배제하려던 수구적 한문지식인들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과감한 청산을 주장하면서도 한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기는 「습관생애연 애연생완고(習慣生愛戀愛戀生頑固)」에서 한문 학습에 대해 아련한 애정을 품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윤효정은 「문자쾌락(文字快樂)」에서 한문을 난해하여 장애로만 여기는 풍토를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계몽담론은 근대 국민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대개 국한문체를 구사하였으나, 특별한 경우 한문 문장에 계몽담론을 담는 경우도 있었다. 변영만이나 유길준의 이 시기 한문문장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겠는데, 구문명의 한문지식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아 근대 국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한 시도라 하겠다. 또한 직접적으로 주변의 한문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계몽을 시도한 이상룡과 유인식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적 계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림을 계몽의 교육 대상으로 격하했기 때문에 이상룡 등의 계몽사업은 대단히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근대 계몽매체인 각종 학회지나 신문에는 한문문장이나 漢詩가 적지 않게 게재되어 있었다.⁴⁴⁾ 계몽담론의 주류적 경향은 한문의 폐지이지만, 전통적 교양으로서

44) 한시의 경우에는 이희복, 『애국계몽기 한시자료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에서 정리하였다.

의 한시와 전통적 독서물로서의 한문문장의 기능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근대계몽기를 지나고 나서 한문은 소수의 언어로 전락하고 공식적으로 근대적 국문체가 중심의 언어로 자리잡는다.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전통적 한문학의 영유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속된 한문학과 근대적 국문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의미 있는 대립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대계몽기를 정점으로 서로 각자의 길로 갈라져서 외면하다가 한쪽이 소멸한 셈이다. 한문을 중세 보편 문어라고 규정한다면, 근대계몽기에 들어서서 한문이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문이 중세 구문명의 언어로서 결국 청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근대적 국문체가 신문명의 언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근대계몽기의 큰 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의 계몽담론과 한문의 관계를 더 탐구해 들어가면 ‘구문명의 한문/신문명의 국문’처럼 단순한 이분법적 사유로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이 발견된다. 한문에서 국문으로의 전환이 압축적으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입장들이 착종되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대계몽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嶠南教育會雜誌』; 『畿湖興學會月報』; 『大東學會月報』; 『大韓每日申報』; 『大韓留學生會學報』;
『大韓自彊會月報』; 『大韓協會會報』; 『독립신문』; 『湖南學報』.

申采浩, 『乙支文德』. 서울: 廣學書舖, 1908.

柳寅植, 『東山文稿』.

李相龍, 『石洲遺稿』.

卞榮晚(저)/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역주), 『변영만전집』.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강명관, 「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 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 1985, 195~252쪽.

김시업, 「한문학에 있어서의 민족적 자아」. 『한국한문학연구』 19, 1996, 113~122쪽.

김시업, 「근대전환기 한문학의 세계인식과 민족적 자아」. 『대동문화연구』 38, 2001, 161~180쪽.

김진균, 「변영만의 비판적 근대정신과 문예추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희곤, 「동산 유인식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45~65쪽.
-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5.
- 박원재,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 『오늘의 동양사상』 11, 2004, 381~403쪽.
- 박원재, 「동산 유인식의 계몽운동과 유교개혁론」. 『동양철학』 26, 2006, 29~54쪽.
- 섭건곤,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
- 신규현,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양철학 수용과 그의 개혁사상」. 『철학』 63, 2000, 5~33쪽.
- 안건호, 「1910년 전후 이상룡의 활동과 사회진화론」. 『역사와현실』 29, 1998, 250~274쪽.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편),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대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 우림걸, 『한국 개화기 문학과 양계초』. 서울: 박이정, 2002.
- 윤순갑·김명하, 「석주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국가주의」. 『대한정치학회보』 12집 2호, 2004, 313~470쪽.
- 이광린, 「구한말 신학과 구학과의 논쟁」. 『동방학지』 23·24합집, 1980, 1~16쪽.
-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서울: 성정사, 1975.
- 임상석, 「근대계몽기 잡지의 국한문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6.
- 정순목, 「영남유림에 있어서 교육개화운동-동산유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 1981, 5~20쪽.
-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2003.
-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서울: 소명출판, 2005.

국 문 요약

이 논문은 근대계몽기의 계몽담론과 한문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한문에 대한 지속적인 타자화를 시도한 계몽담론의 대표적인 경우를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한국의 서적」이나 김갑순의 「부유(腐儒)」, 황희성의 「여여하정선생족하서(與呂荷亭先生足下書)」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몽담론의 생산자들은 실상 구문명의 한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과감한 칭찬을 주장하면서도 한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기의 「습관생애연 애연생완고(習慣生愛戀愛戀生頑固)」와 윤효정의 「문자쾌락(文

字快樂)에서 그 착종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문문장에 계몽담론을 담는 경우도 있었다. 변영만이나 유길준의 이 시기 한문문장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겠는데, 구문명의 한문지식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아 근대 국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한 시도라 하겠다. 또한 직접적으로 주변의 한문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계몽을 시도한 이상룡과 유인식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적 계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림을 계몽의 교육 대상으로 격하했기 때문에 이상룡 등의 계몽사업은 대단히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이처럼 이 시기의 계몽담론과 한문의 관계를 더 탐구해 들어가면 ‘구문명의 한문/신문명의 국문’처럼 단순한 이분법적 사유로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이 발견된다.

- 투고일 : 2008. 10. 10. ● 수정일 : 2008. 12. 8 ● 게재확정일 : 2008. 12. 10.
- 주제어(keyword) : 근대 한문학(Modern Sino-Korean literature), 근대매체(modern media), 문명적 전환(transition of civilization), 근대계몽기(modern enlightenment period).